

전봇대 쓰레기통·대나무 가로수 길 만들자

담양발전 학생 제안 발표대회... 특특튀는 아이디어 눈길

SNS 대나무박람회 이벤트·가사문학거리 조성...

참신한 제안 쏟아져... 담양고 아담위 팀 최우수상

“담양의 특색을 살린 ‘전봇대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단순한 쓰레기통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담양고 아담위팀)

“대나무 관련된 단어로 삼행시 짓기를 하는 등 SNS에서 10대들의 관심을 끌만한 작은 이벤트를 같이 운영하자.”(담양여중 소담소담팀)

담양지역 청소년들이 내년 열리는 세계 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특특튀는 아이디어를 제안, 눈길을 끌고 있다.

담양군은 최근 담양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담양발전 위한 학생 제안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는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분야별 과제

등 연구과제 5개 분야 중 1개를 선택해 지역의 제도개선, 담양발전 방안을 공모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중·고 6개팀의 2차 파워포인트(PPT)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결과 담양고 아담위팀(차승현·김다영·전진호·박성훈, 지도교사 이상화)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담양여중 소담소담팀(김민서·장다인·강수빈·김다인·박승주, 지도교사 박희영)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담양고 담사모팀(한지민·양나영·공원희·진승연·박자현)과 추억에서팀(김남영·백승우·이혜리·정용민·정찬영)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담양고 아담위 팀은 ‘아름다운 담양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봇대 쓰레기통 설치 ▲가사문학거리 조성 ▲벽화마을 조성 등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아담위 팀은 “대나무를 소재로 한 걸면과 스테인리스를 소재로 한 내부 등 이중구조의 ‘전봇대 쓰레기통’을 담양 주요거리에 설치한다면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 특색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은 치밀한 조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적절한 쓰레기통 설치 적정높이는 86cm이며, 설치장소는 터미널~죽녹원 구간 등 읍내 주요거리 총 32개소(설치비용 240만원)라고 제안했다.

또한 “태양광 LED 지하램프를 이용한 보행로와 벽화마을을 조성 등 사소한 것들이 하나, 하나 모여 더 아름다운 담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담양여중 ‘소담소담팀’은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방문객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외국인과 10대~50대 이후 연령대에 따른 방문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외국인 방문객 확대방안에 대해 “현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안내 서비스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역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특별제작 옷 마련과 QR코드로 번역

서비스 활용, 담양 문화체험(한복입어보기·국악기 배우기·전통음식 맛보기) 등을 제시했다.

담양고 ‘담사모팀’은 대나무를 본뜬 물개이를 설치하고, 담양읍 축항대로에 ‘대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한다면 방문객들에게 ‘대나무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담양고 ‘추억에서팀’은 서울 남산타워의 ‘사랑의 자물쇠’와 비슷한 ‘대쪽 매달기’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대쪽에 자신의 소망이나 연인의 이니셜 등을 적어 죽녹원 산책로와 대나무 조형물 등 관내 지정장소에 새겨줄을 이용해 매달자는 것이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소로 만들거나 달걀태우기, 예술작품·구조물 등 환경미화 사업에 활용하자로 제안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시한 창의적인 제안들은 기존의 관행적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단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r@



메타세쿼이아길 달팽이 걷기대회 ‘제2회 메타세쿼이아길 달팽이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지난 20일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겨울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탈북 이주민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눔’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600여명이 참여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r@

장성군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우수상

장성군이 투자유치 분야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2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14년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12년과 2013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받아 3년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올 한 해 동안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A군, B군, C군으로 나눠 투자유치 실적과 투자유치여건 조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장성군은 평가 기간동안 43개의 유망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B군에서 우수

상을 수상, 도지사 기관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날 ‘투자유치 대상’ 시상식과 함께 투자 협약식도 열렸다.

장성군은 ㈜라바기원(대표 양관정), ㈜이엘티(대표 양희원), ㈜지에스파워(대표 조승준), ㈜포스포(대표 박승혁·윤호신) 등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체는 앞으로 장성에 등지를 틀고 총 221억원을 투자해 17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개별투자유치 확보에 노력하고, 기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담양군 제설작업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액상 제설제 사용

가로수 고사 막고 토양·수질 오염 줄여

6개 읍·면 저장 탱크 설치

현장 초동 제설작업 ‘호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염화칼슘 제설제 대신 새로운 친환경 액상 제설제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눈이 많은 수북·대덕면 등 6개 읍·면 지역에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보관할 수 있는 전용 탱크를 설치, 신속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담양군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친환경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최우선 국정목표에 따라 모든 자재를 친환경 중심으로 구입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제설제인 염화칼슘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외화가 유출되고 도로 주변의 가로수와 화단이 고사할 뿐만 아니라 토질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반면 액상 제설제는 실험결과 pH(수소이온 농도지수)값이 중성인어서 환경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도로에 살포하고 있는 제설 차량.

오염과 차량·철구조물 부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 도로현장에 전용 탱크를 설치·보관하기 때문에 강설 초기에 신속하게 제설이 이뤄져 제설효과가 뛰어나다.

담양군 관계자는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지역특성상 일반 살수차로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뿌려 신속하게 제설작업

을 함으로써 눈으로 인한 낙상을 예방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액상 제설제는 여수산단 내 (주)YCC(화장 김재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성능과 녹색 기술 인증을 받고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ir@

화순군 음식문화 개선 박차

신메뉴 개발 등 사업비 늘려

화순군이 내년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

화순군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메뉴 개발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명품음식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 1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사업비를 대폭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위생적인 덜어먹기 집게·국자·위생복 등 음식문화 개선 홍보사업 1억2400만원 ▲신메뉴 개발·경영마인드 교육·전문기관 컨설팅 사업 3900만원 ▲외국인 친화용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2500만원이다.

특히 음식문화 개선 홍보사업비는 음식점 760곳에 모두 지원함으로써 음식점을 찾는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특화거리 시범사업에 투자되는 전문기관 컨설팅 사업과 외국인 친화용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올해 10곳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범 음식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71개소) 등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매직 복화술, 나는 튼튼짱 어린이’

화순군 열린도서관 28일 어린이 건강 관리 강좌

화순군 열린도서관은 28일 오후 3시 다목적실에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12월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복화술사 김중호(극단 우리 대표)씨를 초청해 ‘매직 복화술, 나는 튼튼짱 어린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평소 지켜야 할 기본 생활습관 등을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간단한 게임을 비롯해 퀴즈, 포토타임이 준비돼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061-379-3956) /화순=조성수기자 css@



한편 복화술(魔術術)은 한 사람이 인형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입술과 이를 놀리지 않고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어 관중으로 하여금 인형(人形)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뜻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등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주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현영

대지, 전용기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복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가, 아찔장 주기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